

黃대표 식발로 정점 찍은 한국당...향후 투쟁 전략은

퍼포먼스 줄이고 원내투쟁 집중... '조국 사퇴' 국감 의지

나경원 "정기국회, 조국 국감·사퇴 관철 국회로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인한 여야 갈등이 정기 국회로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식발을 투쟁 동력으로 삼고 원내·외 투트랙 전략으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17일 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文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오후 7시부터는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文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투쟁'을 진행한다.

황 대표는 전날 청와대 앞에서 식발 투쟁을 전개했다. 한국당은

황 대표의 식발로 투쟁 동력을 끌어올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더 나아가 보수대통합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식발과 같은 정치적 퍼포먼스보다 현재 진행 중인 공화문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식발 투쟁 동참과 관련해서는 소속 국회의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고, 상황에 따라 장외투쟁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장외투쟁은 황 대표가 주도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될 만큼 원내투쟁에 집중할 전망이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7~19일, 대정부 질문, 23~26일(정치분야, 외교·통일·안보분야, 경제분야, 교육·사회·문화분야 순), 국정감사 9월30일~10월19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시정연설은 10월22일로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하지만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조 장관의 출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무산됐다. 이 때문에 남은 국회 일정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대어투쟁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발해 3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이학재 의원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

황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고 관련 국가기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

할 계획이다. 사실상 제2의 청문정국을 만들어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정 수사권 조정안 등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과의 격돌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조국 방탄청문회에 이어 조국 방탄 정기국회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조국 국감을 만드는 것은 물론 이번 정기국회를 조국 파면 관철 및 헌정유린 중단 국회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유기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조국 국감, 조국 사퇴 관철을 위한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관련 상임위에서 증인이나 참고인 선정, 자료 요구에 그런 초점을 맞춰서 해달라는 총괄적인 의미의 주문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조국, 임명 후 첫 국회 예방...입시·사모펀드 의혹엔 '침묵'

야당 예방 일정 '다 잡을 것' 외 일절 언급 없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임명 후 처음으로 국회를 예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났다. 그러나 '가족 펀드'를 비롯,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이해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러 가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

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장외 예방 일정을 거절한 점에 대해 "(야당 예방 일정을) 다 잡을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의사실 공표를 법무부가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지, '장관 문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이 미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딸의 고교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제1저자 등재가 입시에 활용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표실로 들어갔다.

조 장관은 오전 11시35분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내 침묵을 지켰다. '인건 협의와 관련해 형사사건 공보준칙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국투자증권 직원의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의 질문이 추가로 던져졌지만 여전히 답은 없는 채였다.

오전 11시51분쯤 국회의장 예방이 종료된 뒤 점심식사를 위해 걸음을 옮길 때도 조 장관은 "앞을 좀 비켜 주시겠어요"라는 말 외에는 취재진에게 남기지 않았다.

조 장관은 '오랜만에 국회에 온 소감은 어떤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청취한 말 중 제일 마음에 와닿는 말은 무엇인지', '딸이 논문을 고려대 대입 당시 제출했다는 기록이 발견됐는데 하실 말씀이 없는지', '하드디스크 교체 당시 동석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식당으로 들어갔다.

뉴스1

홍준표 "윤석열, 정권에 이용당하고 팽 당하는 바보 되지마"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17일 "정권에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팽 당하는 바보 같은 검찰이 되지 마시고 국민과 정의만 바라보고 가는 당당한 검찰이 돼 달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용맹정진을 보면서 그래도 이 땅

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조국 수사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정의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을 청와대, 여야 정치권들의 협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며 "검사는 당당해야 한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당신들이 비난하는 어느 소설가의 책 제목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며 "윤석열 검찰 파이팅"이라고 했다.

김현중-강경화 언쟁 논란에 靑 "갈등 심하지 않아"

조국 5촌 조카 구속 말 아껴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중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말다툼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외교부와 안보실 간 충돌·갈등이 심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장관과 김 차장이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당시 말다툼을 했다는 이야기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다'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이 관계자는 "조금씩 이견이 있

을 수는 있지만 서로 의견이 대단히 달라서 같이 일할 수 없는 정도는 전혀 아니다"라며 "관련 보도를 보면서 '너무 확대 해석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외교부와 안보실 간에 협의·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외교부와 안보실 없이, 안보실은 외교부 없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의 의혹·자유한국당 측의 '식발 릴레이'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

혹' 카멘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모씨가 구속된 데 대해선 "청와대가 이와 똑같은 질문에 답을 했던 만큼 그걸로 같은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16일)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 등에서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조 장관 관련사안은 정치권의 관심사항이지만 청와대가 계속 그것만 바라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식발한 데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뉴스1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가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셨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보험료	급여비	비율
1.1배	240,833원	2.3배
1.7배	125,531원	2.7배
2.1배	79,147원	3.7배
2.7배	48,103원	5.3배
3.7배	26,697원	

www.nhis.or.kr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 원칙의 안전 보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임박해 되었습니다.
-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